

專門誌로서의 所任을 다해 주도록

흔히 電子産業을 無公害·技術集約産業이니, 省資源型産業이라 하여 資源이 빈약하고 良質의 노동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業種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電子産業은 60年代 말에 우리나라에 移植된 後 過去 10여년간 年平均 約 46%의 놀라운 成長을 지속하여 불과 10년 사이에 韓國을 세계 10位圈의 전자제품 수출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런 경이적인 불륨面에서의 성장과정속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山積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部品과 素材工業育成 問題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機器와 部品の 基礎素材 대부분이 輸入에 의존하고 있어 이分野가 마치 沙上樓閣과 같이 되어 있는 点이라던지 技術開發面에서 오늘 날 전자제품의 Life Cycle을 대개는 3년으로 보는게 정상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가 10년 동안을 한결같이 같은 工程의 量的 확장에만 주력하여 이 추세의 변동이 없으면 앞으로 닥아 올 소위「기술쇼크」시대에 가서 나타날 취약점이라던지 政府의 전자산업에 대한 지원문제, 관세문제, 수출 절차의 번거로움 등 일일이 예거하자면 한이 없다.

此際에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서 辛酉年 새해에 들어 회원사들의 권익을 옹호, 대변하고 정책당국간에 교량역할을 담당하고자 월간「전자진흥」誌를 창간한 데 대해 우선 반가움을 表하

면서 또한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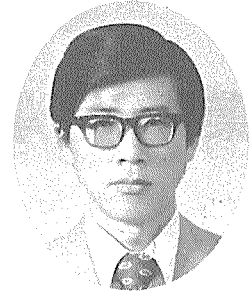
첫째로 周知하다 싶히 電子産業은 50年代 60년대의 세계 자동차산업의 뒤를 이어 나타난 이 시대의 대표적 主力産業으로 그 物量의 막대함은 물론 技術革新과 變化가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흔히 半導體産業을 Crazy Business라고 부르지만 그 所以點을 알고보면 이 산업의 技術革新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企業의 興亡盛衰가 너무나 두드러져 남들이 보기에 Crazy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업체의 능력만으로서 이런 필요한 情報과 技術을 체계적으로 수집, 소화시킬 수는 없다. 적어도 國內外的 신문과 전문 서적에 쏠리는 정보만 소화하려해도 그것에 제대로 되려면 상당수준의 능력있는 Staff陣과 상당액의 금전이 지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편익을 위해서 새로 창간되는「전자진흥」은 먼저 이 情報를 체크하고 소개하는데 응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이미 言及하다시피 불과 10년이란 짧은 시간에 刮目할 만한 成長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정책면에서나 기타面에서 술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 한 예로 우리나라는 전자산업에 소요되는 基礎素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基礎素材의 수입관세가 30~50%의 高率이었다. 이것은 日本의 3~5%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高率로서 電子産業育成이라는 정책적 차



亞南産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柱 采

원에서 보아 상당한 문제점이 되었고 때문에 79年初에 美國같은 나라는 이에 대해서 協商代表團을 통해 半導體를 비롯한 37개 품목에 대해서 韓國의 관세율을 낮추거나 수입자동승인품으로 그 내용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韓國商品 1백30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었다.

결국 지나친 보호주의는 이런 對外的 압력을 招來케 했지만 그 밖에도 國內상품의 원가상승요인이 되므로서 內國商品의 국내수요는 물론 국제경쟁력에까지 타격을 주어 部品業界의 육성과 역행하는 엉뚱한 결과를 빚었던 것이니 애초에 시장을 개방하여 처음에는 힘이 들더라도 장기적 육성방향을 설정함만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財務行政에 있어서도 우선 高率關稅로 일시적 稅收增大를 꾀함보다는 먼저 物量을 늘이는 방향에서 장기적 稅收의 增大를 꾀해야 했고 특히 수출을 위한 施設材 導入에 부과되는 高率關稅는 「輸出立國의 國家的 大命題」에 비추어 상당히 모순되는 느낌을 禁할 수 없다.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美國은 半導體 開發을 위해 정부가 직접 2億 달러를 투입하였고 日本 역시 정부가 3億 5千万 달러, 英國이 8億 달러, 프랑스가 5億 9千万 달러 등 선진국 일수록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半導體産業을 키워 보려고 血眼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조세행정에서 마저 이 처럼 낙후되어 있는 것이다.

創刊되는 「전자진흥」은 업계의 이런 문제점들을 그때 그때 정확히 보도하고 알려주므로서 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前哨의 역할을 심분 발휘해 주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編輯上의 문제이지만 원래 電子産業이 産業關係效果가 크고 所要部品數가 많다가 보니 業界內에 위로는 大企業으로부터 아래로는 小型單一化된 部品를 생산하는 小企業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의 업체가 포함되어 각자 약간씩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잡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素材의 선택이나 水準程度를 決定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항시 이 잡지를 통해서 업계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一翼이 될 수 있도록 再參 유념해 달라는 것이다.

現代는 갈수록 일반적인 성격을 띤 신문이나 잡지들이 電波媒体에 그 영향력을 잃음에 비해 특정 전문잡지나 신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새로 창간되는 「전자진흥」의 전문지로서의 역할은 갈수록 重要性이 입증되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새롭게 창간되는 「전자진흥」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아무튼 「전자진흥」誌가 오늘날과 같은 情報의 홍수속에서 業界에 보다 차원 높고 알찬 記事를 충실히 제공해 주길 기대하면서 관계되는 여러분의 健闘를 빈다.